

제 111 호

주의 세례 축일

1975. 1. 12.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1975년도□

연두 사목 교서 (年頭司牧敎書)

김재덕 주교



4반세기만에 맞는 모처럼의 「화해의 성년」 1975년 새 아침에 즈음하여 교구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더욱 풍요히 내리기를 축원하며, 삼가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동안 교구 사목의 각 분야에서 거룩하게 성실하게 전력해 주신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 평소에 본(本)주교가 지향하는 교구 사목행정의 전망과

2. 지난해 (1974년)에 실시한 교구사목의 전반에 대한 반성과

3. 금년(1975년)에 실시코자 하는 교구 사목의 방향 등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1.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들다 보존된다" (마태오 9:17)는 복음의 정신과 "모든 교회는 세대를 통하여 그 시대의 특징을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명해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제4항)는 공의회 정신이 암시해 주는 바와 같이 현대교회의 사명은 현대사회에 침투하여 그 속에서 복음화를 이룩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교회가 무분별하게 현 사회에 동화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시대 감각에 예민한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시대사회를 올바르게 이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오늘과 같이 날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일수록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잘 읽어가면서 사회 현실 참여에도 과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가 지향하고 착수한 거대한 「교회의 현대화」 작업의 일원책으로 우리 교구로서도 1차적인 사목 계획으로, 우리 교구를 현대세계에 알맞는 새로운 모습의 교회로 새롭게 단장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1) 교구사목 행정체제를 교구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강화 (행정체제 강화) 하는 한편

(2)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전반에 걸친 「현대세계의 사목현장」의 정신에 입각한 재교육 (교육)을 활발히 전개 하며,

(3) 교구민 전체를, 특히 평신도들을 교구 사목활동에 적극 참여시켜 명실공히 자치 교구로서의 실력을 배양 (실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교구 사목방향을 전망

하는 바입니다.

2. 지난 1년간 우리 교구는 「화해의 성년」과 때를 같이 하여 주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거룩한 해였음을 크게 감사드려 마지 않습니다.

여러차례 지역별 혹은 단체별로 행해진 성년행사를 통하여 하느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훌륭한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었으며, 결들여 5차에 걸친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으로 우리 교구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간에 사랑의 공동체 의식이 크게 고취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구 운영, 예산 편성에 최대한으로 성직자 평신도를 많이 참여시켜 자치 교구로서의 자립정신이 크게 양양되었고, 교구청 기구 조직(부주교, 사목국장 전담제 등)이 강화됨으로 교구 행정의 체계화에 기틀이 마련되었읍니다.

그외에 수차의 지방 순회교육, 2회의 교리교사 연수회 사무장 연수회 등 각 계층을 망라한 재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순정이」지가 교구지로 승격됨으로 각 본당간의 정보 교환과 상호 유대가 활발해 졌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는 뜻하지 않은 지주교 사건을 계기로 발표된 한국 주교단의 사목교서와 기도회 등을 통하여 사회문제 의식이 크게 개발되었음을 들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한편 1/3(3분의 1)미사 제도 실시 부진, 세계 양성 후원 사업의 담보상태, 신자실태(특히 냉담자) 파악의 미흡, 누적 교구헌납금의 정리부진 등 미흡한 점들이 또한 많음을 함께 자성하는 바입니다. <계속>

- *교리 교사 연수회.....2회
- *회장 총무 연수회.....1회
- *성심 해성 교사 연수회.....1회
- *본당 순회 교육.....15개 본당
- *기도회.....7회

- ①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기도회(철야) 74년 7월 23일 중앙성당
- ②사회 정의 구현과 국가를 위한 전국 기도회 74년 8월 12일 중앙성당
- ③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 74년 11월 11일 전동성당
- ④조국을 위한 기도회 (주최 : 가톨릭 학생회) 74년 11월 17일 전동성당
- ⑤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 74년 11월 18일 이리 창인동 성당
- ⑥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 74년 11월 20일 중앙성당
- ⑦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 74년 12월 10일 중앙성당



마음에 드는 내 아들

서 정 수신부

설날의 공백이 글러 떨어지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아버지의 마음에 포근히 안기기까지 슬한 사연이 재재한다 무슨 수를 써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메시아를 알고 있으니까? 어림도 없다.

그 분을 좋아 하니까? 아직은 멀다.

그와 함께 즐거워함으로? 허나 먼저 그분과 울고 나서의 일이다. 아버지의 고임을 한몸에 독차지하게된 곡절을 약간 훑어보면, 말씀이 인성을 받아서 곧 수욕하십시오. 자신을 "무"로 만드신 것이고 죄 곧 종의 탈을 쓰십시오. 무 이하로 비하셨다. 무하하신 하느님 앞에 유한성의 피조물 곧 인성은 완전한 무와 같다. 죄는 없음만 못한 곧 마이너스점 이하이다.

죄인을 살리시려 인성을 취하시자 마자 왕의 자리를 노리는 반역자로 몰리어 간신히 죽음을 면했지만, 그 대신 깨끗한 생명이 너무 많이 쓰러짐을 울어야 했고, 죄인이 받아야 하는 회개의 세례를 자원하시어 수인의 인성을 받는 자기 비하를 감수하시고, 살인강도 이하의 대우에 고개를 숙이고, 하느님 권한에 시역하는 반동자의 탈을 머리에 이고 못 원수들의 구경거리를 세시간동안 전시 될제 그 정신 고민에서 고통은 분명히 생리적인 모든 고통을 백배나 능가하는 모델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의 지체인 교회가 외적에게서 갈기갈기 찢기울 제안으로는 그분의 살을생명원으로 사는 벗으로서 그 자비를 회롱하며, 실마 용서하리라는 사귀적 억측하에 등을 돌려대는 역판창생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셔야 하는 그 심정에 느끼셔서, 아버지께서는 "너의 종을 보라... 나는 그 위에 나의 열을 주노라"고 하신다.

주께 양순과 겸손을 배우는 자 어찌 과한 겸손을 운위 하는고!

나의 겸손은 의례상의 사양이거나 혹 도피의 수단으로 아니면 과한 자존심의 간접적 표현일 때가 더 많다. 하얗는 공이라도 무시를 당하면 남을 깎아서 저를 지름지게 하려 들지 않는가? 겸손하여 예수님 같이 귀여움을 받고 싶지만 나는 내 얼굴을 못본다. 내 얼굴에 있어서 안될 무엇을 보고 나를 책신할 것일 못 가진다. 아직도 그를 받아드릴만한 수양이 전무 상태이다.

신의(身外)에서 받는 모든 권리는 남을 위해서 받았지만 그 권리를 논 할때는테라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권자가 있을까?

권리는 위험한 것, 그 앞에는 출세를 위한 꼴단지 공세와 아첨하는 여우는 있어도 충언으로 노여움을 살려는 어리석은 자는 없다. 10년 감언을 들으면 그 아첨의 가면을 자기의 진짜 얼굴로 알 수 밖에 도리가 없다.

그 위험을 절감한 분을 내가 책에서 보았다. 로마 모신학장이 권좌의 기회를 네번 사양했다. "나는 그 위험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리라"고. 직간할 수 있는 벗이 셋 있거든 안심하라.....허나 귀한 몸으로 교만하지 않고 예를 꼭 지키는 듣기도 어려우니 차라리 내 서민으로서 도를 굳이 지켜 아첨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가난중에서 심락을 찾되 모든이가 거지되어도 주 홀로 진실되시다. 다만 주를 위하고 이웃을 돕기로 하셨나이다를 되풀이 할 때에만 "내 마음에 드는 내 아들아" 하시며 아버지께서 팔을 벌려주시리라. <황동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위에 머무시며, "이는 내 사랑 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성부의 소리가 들려왔다.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 42:1-4, 6-7)

보라, 내가 좋아하는 종이로다.

□증계송 ○야훼님이 당신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야훼께 바쳐라 주님께 그의 이름의 영광 드리며 거룩한 차림하고 주께 조배드려라. ◎

□제 2독서 (사도행전 10:34-38 성서 p 290)

하느님이 성신을 그에게 부어 주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사랑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도다.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3:13-17 성서 p 5)

예수세례를 받으시자 성신이 당신위에 내려오심을 보셨다.

□신자들의 기도

1.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당하게 억압받는 사람, 약한자의 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도록 이끌어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사회는 물질제1주의, 권력과 금력의 힘이 너무 지나쳐 갖가지 부정부패의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오니, 민사를 똑바로 볼 줄 알고 실천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3. 지학순 주교님과 정의구현에 선구적 역할을 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위하여 비오니 저들에게 급할 줄 모르는 용기와 건강을 주시고,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은 일치 합심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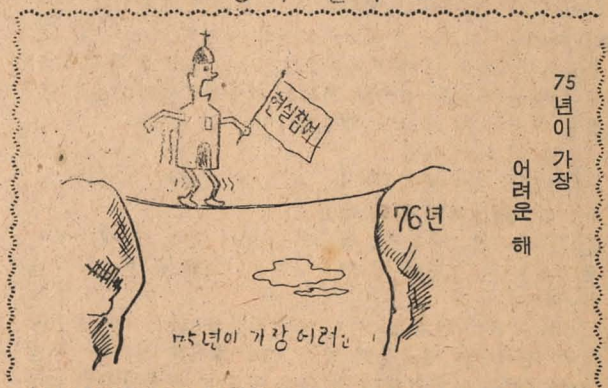
4.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모든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이 태워주신 인간의 기본권을 불의하고 부당하게 침해 받아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는 모든이를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한 위로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주여, 당신 백성이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어, 믿는 마음으로 청하는 바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비나이다 ○아멘

(3) 성찬의 전례 □불린 □성찬식

□영성체송, 보라 이분이야말로 요한이 예언한 그분이시니, 이분을 요한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였도다.

* 순정이 산책 *



75년이 가장

어려운 해

76년이 가장 어려운

□양지쪽□



신년을 맞이하여

박 미카엘라 수녀

1974년의 갑인년은 이미 과거라는 단어로 탈바꿈하였다. 진정한 갑인년은 어떠한 해였는지 한마디로 집약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해의 올바른 반성은 새해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각자가 다른 반성과 설제가 있겠지만 우선 74년을 대표적인 단어로 바꿔 말한다면 숨막히는 해로써, 사상 최대의 다망하였던 해라고 부르고 싶다. 아마 성난 범의 해였다고나 할지.....

그러나 성난 범의 불꽃이 식기도 전에 아니 새해를 맞을 준비도 되기 전에 벽찬 365일을 다시 받아야 하는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기정 사실이다.

아마 이것이 인생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무엇이냐 완전이 없듯이 우리의 완전한 준비를 기다려주는 자는 없다. 다만 미미된 우리의 겸손위에 부담없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가치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과거라는 강하고 즐거운 반석위에 새해의 설제를 다시 싣고 가꾸어 가도록 용기를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세계를 정복하는 것도 나 자신의 정복에서부터 이루어 지듯이 을묘년을 행복과 평화의 해로 정복하는 것도 역시 우리 하나하나의 알찬 세계와 정복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정복을 나로부터 할 것인지? 각자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정복하는 해로 삼고 싶다. 아마 이것이 화해의 성년을 완성하는 우리의 자세이며 아울러 새해의 설제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하나하나의 약함과 부족, 나아가서는 모순이 강한 중족으로 변고 될때 우리는 성숙해 간다고 믿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제가 있다면, 적은 것과 미소한 일에 보람을 찾을 줄 알고, 어려운 역경에 자신을 잃지 않는 생활 태도가 되도록 힘써야겠다.

다시말해서 토끼같이 슬기롭고 악삭빠른 새해가 되어야겠다. 만일 꾸준성이 부족하여 거북이에게 당하는 해가 되지 않도록 시작부터 꾸준해야겠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두글자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는 그리 쉬운 것은 못된다. 그 성공의 두글자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인내와 성실이 투자되어 있음을 이따금 망각하게 된다.

특별히 새해의 적은 설제를 성공으로 이끌어 위해 우리의 변함없는 성실과 인내와 사랑을 투자해야 함을 명심해야겠다. 나 하나의 성실과 인내만이 주위의 모든이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달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75년의 성년을 평화의 해로 변모시키는 길이며 "나를 당신의 도구로써 주소서" 하고 주님께 간청하고 싶다. 새해 아침의 설제가 매일의 설제로 변하여 끝까지 새해의 아침으로 끝맺어져야 하겠다.

<성체회 수녀원 총장수녀>

요심이 (77) 김병오



□신간안내□

하루 한순간을
홍윤숙저 1,200원
마더테레사
멜컴 마그렛즈 400원

* 알리는 말씀 *

여러 친지 어른신네 분께

밝아오는 을묘 새해를 맞이하여 귀택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하느님께 기원드리면서 삼가 아뢰옵니다.

신랑 송홍섭(토마스)군, (유순애 여자 큰아들)과 신부 소남이(첼마)양 (소재창씨의 막내딸)의 혼례식을 여러 친지 어른신네를 모시고 중앙천주교회에서 을묘년 1월 19일(일요일) 낮 12시에 주례 이대권 신부님을 모신 가운데 혼배성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비읍니다.

<양가대표: 송주배, 소재창 드림>

현대 광고사

(광고물 제작 실크인쇄)

* 현대 DP 사
(칼라 사진, 카메라 수리)

송 홍 섭

삼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버거리 층간
전화 @ 9431

□전주 대건 신협동조합 제7차 정기총회 공고□

일시: 1975. 1. 14 밤 7시 장소: 전동성당

<안건>

1. 결산보고 및 승인
2. 75년도 예산 심의 및 결의
3. 임원 선거
4. 기 타

<경품추첨>

- 1등: 1명 TV 1대, 2등: 2명 자전거 2대
3등: 3명 쌀 3가마, 4등: 4명 라디오 4대
5등: 5명 라면 5박스, 6등: 6명 만년필 6개

등의: 참석자 전원 기념품 증정

방법: 총회 당일 재발급된 매수 및 번호에 의하여 조합원 총의사로 판리인을 선정 공개추첨.

(추첨권 재발급 방법): 조합원 개인별 년간 해당 매수에 의하여 조합원 통장번호 기재 발급함 (예) 391번 120장이면 391번호로 120장 발급

상기와 같이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조합원 전원 꼭 주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 1. 8

전주 대건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한 수 옥

제4지구 각 본당 소식

◇ 공지 사항 ◇

1. 교리교사 연수회 : 1975. 1. 20(오후 1시) 1월24일까지 가톨릭센터(4박5일)
2.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새해를 보다 계획있게 준비 하기 위하여 본 센터에서는 공동체 목상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으니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제3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안내' 참가범위 : 가톨릭 중고등 학생, 참가비 : 1500원. 기타경비는 전주 교구 학생연합회에서 충당. (때 : 1975년1월13일 오후2시-15일5시까지, 접수마감 : 1월12일5시까지)

3. 불우한 이웃 돕기 1일 찾집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성금 : 20,150원 -셋별 브레서디움 단원 일등 올림-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3874 보좌 신부 서 석 구
 사도 회장 사도 김 영 진

1.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2. 신용조합 정기 총회 1. 25(토) 성당 강당 (예산, 결산, 사업계획, 임원선거, 경품 및 시상)
3. 성모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4. 신용조합 이익 배당 : 통장 제출 요망
5. 교무금 수입 요망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성우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3. 사도회 재정 보고
12월말 총 수입 : 977,896원 잔액 119,149원
12월말 총 지출 : 858,747원
지난 주 성미 : 2달1회 누계 346.5회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병자 성사자 사무실 신청 바람
2. 성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주최 남·여혼성심으로!
남노(수) 오전10시 편입자 : 이태영, 이홍재, 이정은
중노 1. 2가(화) 오전10시, 편입자 : 전길남, 김정성
이순화, 박강웅
인후, 우아(일) 오전 9시 편입자 : 박성규, 이재열,
고여우, 김진호
3. 신용조합 정기 총회 : 다음 주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합니다.
(중노1가) 백정료 : 10,000원, 한영순 : 2,000원
주제 : 12,000원 누계 : 1,901,152원
5. 중·고등학생 교리 시간 : 목, 금, 토 오후 3시부터
지도장사 : 강 막달레나 수녀님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갱생원(호성동) 위문품 가지고 위문 : 1. 3일 오후
2. 삼관 공소회합
<14>석자리, <15>내어두리, <16>외어두리
3. 반장님들 회합 : 19일 10시 미사후
4. 중·고 학생 회합실 모이기 바람 : 12일부터 (오후 2시부터)
5. 제7차 성가 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 공고 : 26일11시 서학동 천주교회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 환 협
 보좌 신부 이 정 승
 사도 회장 이 정 협

1. 자모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성가(聖家)회 월례회 : 오후 2시30분,
초청강사 : 유장훈 신부님
3. 애령회 특별헌금 있음
4. 제7차 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 보고
1월14일 밤 7시 전동 성당에서
5. 본당 중·고등학생 동계특별교리 : 1. 13-18일까지
6. 학생동계 등반대회 : 오늘 9시 미사후 출발
간단한 등산차림으로 도시락 지참 할것.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장 말가리다(광옥) 남문 유리점 전화 ㉠4041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종 환

1. 고교생들을 위한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2. 교리교사 연수회 : 많은 참석 바람
3. 매주 공식 미사는 부활까지 없음
4. 주일학교 방학
5. 신용조합 월례회 : 공식 미사후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교 부 신 태 인 음 창 제 안 인 음	신광 공소신자 영적 지도 실시	3,750원	제 3 지구	창 인 동 황	지성인을 위한 예비자 교리	25,250원
		신용조합 정기 총회 예비자 교리 동계 중고생 교리 강좌 동계 아동 교리 실시	14,160원 2,955원 11,390원				
제 2 지구	대 문 울 동 월 명 중	아동 동계 교리반	2,525원	제 4 지구	중 앙 노 송 동 덕 진 자 복 서 학 동 전 동	꾸리아 월례회 병자 성사 신청 바람	41,160원
		중·고등학생 교리 동계 아동 교리 실시 중·고등 학생 교리	35,370원 22,320원 13,025원				
제 3 지구	고 산 산 산 주 언 동	마리아 군단 회합 순시	3,315원	제 5 지구	남 원 주 장 제 안 진 순	선생님 특별 초빙 지주교인, 불우이웃, 일선장병모금	4,560원
		신우회 월례회 의자 특별 사일에 관심을! 첫 영성체 교리 실시	10,420원 3,175원 8,477원				
						신부님 전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비자 교리 개재 신부님 특별 초빙	6,310원 2,150원